

길안에서의 택시잡기

장정일

길안에 갔다.

길안은 시골이다.

길안에 저녁이 가까워졌다, 라고

나는 썼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서두를 새로 시작해야 했던가?

타자지를 새로 끼우고, 다시 생각을

정리한다. 나는 쓴다.

길안에 갔다.

길안은 아름다운 시골이다.

그런 길안에 저녁이 가까워졌다.

별이 뜬다.

이렇게 쓰고, 더 쓰기를

멈춘다.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나는 끼워진 종이를 빼어,

구겨버린다. 이놈의 시는

왜 이다지도 애를 먹인단. 나는

테크놀러지와 자연에 대한 현대인의

갈등을 추적해보고 싶다. 종이를 새로

끼우고, 다시 쓴다

길안에 갔다.

길안에서 택시를 기다린다.

길안에 택시가 오지 않는다.

모든 도시에서 나는 택시를 잡았었다.

그러나 길안에서 택시잡기 어렵다

쓰기를 다시 멈춘다. 너무 딱딱하지

않은가? 모든 문장이, 다.

로 끝나는 것이 이상하게도 번역투의

냄새를 풍긴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그런 지적을 많이 들었지 않은가?

쓰던 종이를 빼어 구기고, 한 장의 종이를

다시 끼웠다. 나는 쓴다.

길안에 갔다.

길안에 택시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모든 도시에서 쉽게 택시를 잡았건만

길안에서 택시잡기 어렵고

어느새 어두워진 길목마다 별이 쏟아진다.

문득 길안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다시 쓰기를 멈추었다. 좀더

매끄럽게, 좀더 구체적인 풍경묘사로부터

서두를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중략)

여기까지 쓰자 아침이 밝고, 나는 세수를 하
러 일어난다.

하룻밤 꿈을 꾸 듯, 밤샘한 어제가

어릿하다. 더운물에 찬물을 알맞게

섞는다. 생각이 떠올랐다.

물과 물이 섞인 자리같이

꿈과 삶이 섞인 자리는, 표시도 없구나!

나는 계속, 쓸 것이다.

천재 쉬인

20160042 구인용

※ 본 에세이는 장정일의 '길안에서의 택시잡기'의 전개 방식을 일부 모방하여 작성된 에세이입니다.

장정일의 시 선집 <지하인간>을 읽었다. 서정주 에세이에서 이미 직접 발표한 시집이 아닌 시 선집을 읽으며, 시인이 의도한 연출이 일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 해놓고, 또 다시 시 선집이다. 시집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겠으나, “한국대표시인 100인선집”의 101번째 선집이라는 아이러니가 책을 읽고 싶게 만들었다. (박노해는 102번째 시인이다. ㅋ.)

아, 위 문단의 첫 문장을 제외한 모든 문장이 사족 같다. 웬지 서두를 망친 것 같지만 오늘 밤은 짧고 할 일은 많으니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 재미 없는 언어 유희는 그만두고 첫 장을 펴다. 장정일의 간단한 인사말. '시로 덮인 한 권의 책 / 아무런 쓸모없는, 주식 시세나 / 운동경기에 대하여, 한 줄의 주말방송프로도 / 소개되지 않은 이 따위 엉터리. / 또는, 너무 뻑뻑하여 화장지로조차 / 쓸 수 없는 재생불능의 종이문지'. 엉터리 글인지는 읽어봐야 알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대개 동감하는 바이다. 한자로 쓰여진 그의 이름, 蔣正一이 과연 본명일지 의문을 갖는다. 는 문장을 쓰기 위해 '蔣' 자를 찾는데, 너무 비슷한 글자들이 많아 조금 피곤해졌다. 蔣,將,漿,漿,醬... 끊임없이 붙는 사족은 불안정한 의식의 방증이다. 문단을 지우고, 한 문장만 남기기로 한다.

장정일의 시 선집 <지하인간>을 읽었다.

한참을 무심하게 읽는다. 황지우 시집에서 더러 보였던, 가슴에 박힐 만한 감각적인 문장은 보이지 않는다. 박노해보다는 제법 싱거운 삶을 산 사람인 듯하고, 서정주처럼 '친일'이라는 딱지도 없는 듯 하니 에세이를 시인의 삶과 성향에 대한 내용으로 채우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에세이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한다. 나는 시인에 대한 나의 이해를 어필할 수 있는 재치 있고 잘 읽히는 글을 쓰고 싶다.

그런데 가만히 읽다 보니 이 사람, 꽤 글을 재미있게 쓴다. 쉽게 읽히는 와중에 시인의 상상력이 돋보인다. “쥐가 된 인간”은 쥐를 잡으려다 놓쳐버린 뒤 쓴 시이다. 글 속에서 어느새 달아난 새앙쥐는 쥐들의 왕이 되어버리고, 자신은 그 근위병들에게 잡혀 ‘쥐를 찍어내는 주형 속에 들어가, 오늘 / 만물영장이 무섭게 짓밟힐 때 / 불필요한 사색과 지혜는 마구 잘리며 / 기름진 털은 송송 돌아나 또다시 평민인 쥐가 되어버린다. 한편, “물에 잠기다”라는 시에서는 장정일만의 세계 종말을 감각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발목 높이부터 점차 차오르는 물에, 점점 잠겨버리는 것이다. 채송화가 져고, 개들의 집이 져고, ‘나는 은혜를 사랑한다’던 담벼락의 낙서가 져고, 그녀의 아랫다리가 물에 터져 불어오른다. 그 후로도, 교탁, 법정, 서가의 책들... 교회의 침탑을 끝으로 세계는 물에 잠긴다. 교육, 법, 지식과 종교; 가장 어린 것들부터 사라진다. 세기말, 가장 먼저 버려질 것들부터 잠긴다는 것이 어쩐지 필연적이다.

시인의 상상은 일상적인 곳에서 출발한다. 가령, “안 움직인다”는 시는 대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아주머니를 관찰하며 시작된다. 거기서 그는 ‘거칠고도 사실적인 빈곤의 냄새’, ‘세계가 썩는 냄새’를 맡고, ‘배신, 고독, 욕정, 비련 같은 단어’들에 대해 사색하고, ‘생에서 공포가 제거된 다음의 짜증스런 세월’을 본다. 사소한 풍경에서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를 보는 눈이 조금 부럽다. “지하도로 숨다”라는 시에서는 조금 덜 철학적인 공상도 엿보인다. 시인은 어쩐지 비를 피해 잠시 들어온 지하도에서 나가고 싶어하지 않아 하며, 시집 제목처럼 지하인간의 삶을 잠시 상상으로나마 탐닉한다. 웬지 비슷한 사유를 겪어본 나는, 그 말도 안되는 이야기에 공감해버렸다. 에세이에 한 줄을 추가한다.

장정일의 시 선집 <지하인간>을 읽었다. 그는 독창적인 발상을 감각적으로 풀어내며 일상에서 깊은 사유를 이끌어낸다.

시집을 몇 장 더 넘기다가, 낯익은 글을 발견한다. 첫 수업에 다뤘던 “햄버거에 대한 명상”과 “늙은 창녀”가 바로 그것이다. 아, 맞다. 이 사람이 그 광인(狂人)이었구나... 정일이를 그제야 알아본다. (웬지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웬지 이북 땅의 위대하신 또 다른 정일이가 생각나, 괜한 친한 척은 그만두기로 한다.) 어쨌지, “쉬인”이라는 시에서 스스로를 ‘은 은 유와 푸 풍자를 내뿜으며 / 처 처 천 년을 장수한 나 나 나는 / 쉬 쉬 쉬 쉬인입니다요.’라고 소개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여기서 나는 또 한 번 고민한다. 미치광이의 글에는 그에 걸맞는 소위 ‘포라이’같은 글을 써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웬지, 그가 김춘수의 “꽃”을 변주하여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이라는 글을 탄생시킨 것처럼, 나도 그의 글을 비틀어보고 싶다는 반항심과 비슷한 감정의 욕망이 꿈틀거린다. 아마 “달리고, 주저앉고, 죽다”를 흥내내는 것이 쉽지 않을까? 그냥, 그저, 씬표를, 많이, 쓰면 될 것 같다. 형식적으로는 유사하겠으나 나는 ‘비로소,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 같은 멋들어진 표현으로 글을 맺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늙은 창녀”를 따라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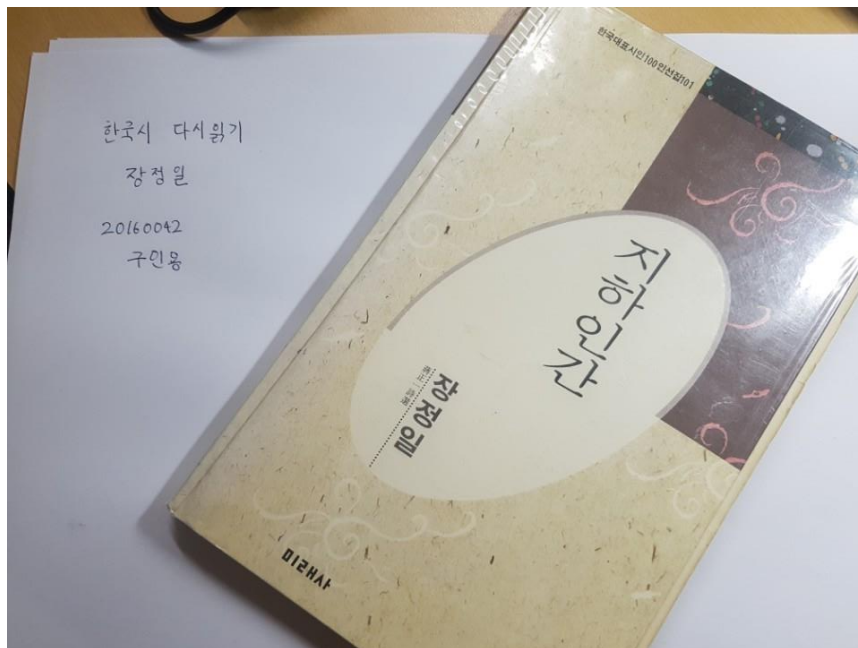
아... 재미 있어... 사실... 박히는 느낌은... 별로... 없는데... 근데... 더 듣고 싶어... 네 판타지...

음. 우선, ‘박히는 느낌’은 표현이 가슴에 박히는 체험을 의미하며, 판타지는 시인의 상상을 뜻하는 것이다. (필자는 변태가 아님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다.) 그러나 이렇게 글을 전개하기에는 교수님의 도량을 감히 시험할 용기도 나지 않고, 쓰는 입장에서라도 부담스러우니 그만두기로 한다. 한숨을 쉬고, 책장을 조금 더 넘겨본다. 우선, 시 한편을 선정해야 한다. 요구하신 에세이의 요건은 모두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닌가. 적당한 시를 발견한다. “길안에서의 택시잡기”.

“길안에서의 택시잡기”에서 우리는 장정일이 시를 완성하는 과정을 따라가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본 에세이도 과정을 여과없이 담아보았다.) 독백의 형태로 시를 수정하면서 스치는 생각들을 빠짐없이 기록해 놓은 덕분에, 우리는 그가 갖는 시에 대한 생각과, 그가 쓰고자 하는 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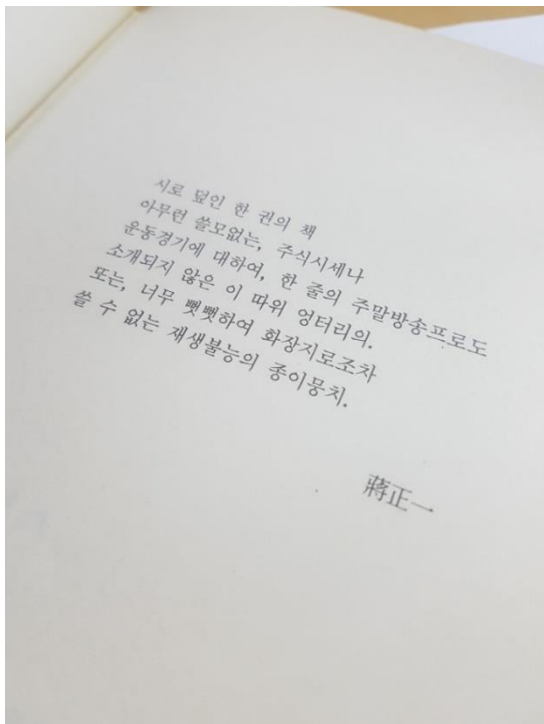
한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정말 쉽게 쓰여진 글처럼 읽힐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간단히 쓰여진 글이 아니다. 먼저, 독백의 행갈이를 보면 알 수 있다. 거의 모든 행에서 그는 문장을 제대로 맺지 않는다. 독자가 한 행을 읽고 멈칫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문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빠르게 독백부를 읽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본 에세이도 일부러 온점의 위치를 조절해 보았다.) 단순한 의식의 흐름처럼 보이지만, 교묘한 연출이 숨어있다. 또, 글에는 시에 대한 제법 무거운 사유도 담겨있다. ‘우표를 모으는 우표수집가가 / 자신의 스톡 북 속에 우표를 수집해두는 / 일같이, 시쓰기 또한 내 가슴속에 / 시를 모아두는 일’이라던가, ‘유년시절에 / 계집애들이 하던 고무줄 놀이가 아닐까, 시 같은 / 것은. 점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 자꾸 / 고무줄 높이를 높이면서 고통을 즐기는 것, / 고통을 즐기는 것!’. 고작 우표 수집이나 고무줄 놀이에 비교했지만 장정일에게 글쓰기란, 즐거운 이지적인 행위인 것이다. 글을 쓰며 밤을 새운 그는 마지막 연에서 조차 세수를 하다가 글감을 발견한다. ‘물과 물이 섞인 자리같이 / 꿈과 삶이 섞인 자리는, 표시도 없구나! / 나는 계속, 쓸 것이다.’ 의도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분명 의도했겠지만) 이 세 행은 행갈이가 적절하다. 즉, 이 독백은 들어쓰기가 없음에도 사실 시다. 이런 영악한 포라이 같으니...! 나도 글을 마무리 해야겠다. 결국 너무 짧은 에세이가 탄생해 버렸다.

장정일의 시 선집 <지하인간>을 읽었다. 그는 독창적인 발상을 감각적으로 풀어내며 일상에서 깊은 사유를 이끌어낸다. 도전적인 그의 글들을 그저 실험적인 시도로만 읽는다면 조금 아쉽다. 형식과 상식을 뛰어넘어 재치 있게 생각을 전하는 장정일은 천재 시인, 아니, 쉬인이다.



〈지하인간〉 (지은이 장정일), 미래사

1991년 11월 15일 초판 발행



Ps. 장정일보다는 쓸모있는 글을 쓰기 위해.

-9월 26일의 주식시세

코스피: 2,374.32 / 전일대비하락 6.08 (-0.26%)

-9월 26일의 야구 경기

〈LG〉 0 : 6 〈KIA〉

〈한화〉 8 : 11 〈롯데〉